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주문한 시집이 도착했다. 시인을 알지만, 잘 모른다. 그와 알고 지낸 시간이나 함께 나눈 대화는 내 삶의 다른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하지만 이제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얇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시인은 통명스럽지만 따뜻하고, 거칠지만 정교하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나 선부른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의 힘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그것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와는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방식이다.

시인은 당연하게도, 절망하거나 좌절

언어의 힘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으로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 데서 시를 쓴다. 그의 시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묘사나 고발에 그치지 않는다. 정확한 현실 인식 너머를 생각한다.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구조 등의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을 제공한다. 그것은 어쩌면 어릴 적 고향의 강에서 하얏없이 바라보던 강물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을 것이다. “어린 내가 서러우면 강물에 앉아 흐르는 물을 낚 놓고 바라보곤 했다.”(황규관, ‘강물’ 중에서)

흘러가는 강물은 시작과 끝에 주목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주목하고, 반응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는 일이다. 멀리서 정류장으로 차가 들어오면 먼저 타려고 뛰어난다. 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시대에 이번 차를, 다음 차를, 다음다음 차를 그냥 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차는 모른 척 보내고/ 우두커니 혼자가 되자/ 혼자가 되어/ 멀리서 내리는 빗소리를 듣자// 다음 차도 보내

고/ 다음다음 차도 보내고/ 저물녘에 우는 늙은 새 울음도 보내고/ 슬픔에 사로잡힌 영혼도 보내고……”(‘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중에서)

시인의 힘은 그의 언어에서 나온다. 그는 부드럽고 유려한 문제가 아니라 적확하고 명료한 언어의 힘을 지향한다. 그의 언어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집단에 정박하지 않고 흘러갈 따름이다. 언어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의 언어에서 그 힘을 발견한다. 균형을 잡고 판단을 가능하는 기준을 세워 주었던 ‘법의 언어’가 사라졌고, 현실과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날카롭게 전달했던 언론의 언어가 실종되었다. 아이들의 언어는 가장 빠르게 오염되고 있으며, 어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카톡 단톡방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언어들이 난무한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해야 하고 어떤 언어를 지향해야 하는 걸까.

“가장 큰 언어는 들을 수 없는 언어다. /…가장 깊은 언어는 그기원을/ 모른다

…/ 가장 오래된 언어는 그 최종 지점도 / 없다…//오늘의 언어가/ 과거의 언어가 아니듯/ 우리의 언어가 어제의 비명이었고/ 싸움이었고 사랑이었듯/ 반달을 바라보는 골목길이었듯/…/ 국가의 언어 말고/ 탐욕의 언어 말고/ 나의 언어를 나의 너/ 의 언어를// 원통하게 죽어간 이의 언어를/ 언제나 버려졌던 어머니의 언어를/ 여개가 떨리는 언어를/ 바람결에 반짝이는 언어를……”(‘가장 큰 언어’ 중에서)

이 시대에 여전히 ‘언어’를 붙들고 있는 이들을 주목하자. 시인, 소설가, 비평가, 에세이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작가들은 어쩌면 지구를 지키는 생태운동가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언어를 붙들고 씨름하자. 그것은 나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며, 직장

社 說

에너지 융·복합단지 광주·전남 성장 거점으로

광주·전남이 정부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엇그제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는 대규모 에너지 발전 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해 에너지 특화 기업과 연구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도 역시 여기에 발맞춰 한전이 있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일대를 축으로 광주·첨단지구와 장성 일대를 포함한 ‘광주·전남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전공대 연구를 러스터 등을 핵심지구(10.73㎢)로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 첨단과학산단(1·3단계), 빛그린 국가산단, 장성 나노기술일

반 산단을 연계해 1지구(6.85㎢)로, 목포 대양산단과 신항 배후 부지(1.34㎢)를 연계해 2지구로 조성하는 개발 사업(총 18.92㎢)도 예정돼 있다.

시도는 향후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 기구로 광주와 전남에 각각 독립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이 본격에도 여러곳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도가 이번만큼은 그동안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고루 나눌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는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교육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야

올 3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부활됐다. 하지만 방과후 영어 수업을 아직 개설하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값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김 모(43·광주시 북구) 씨는 올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부활됐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방과 후 영어 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던 탓이다. 김

씨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공교육 혜택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방과후 영어 수강료가 3만~6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사설학원은 수십 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교육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 영어체험센터 역시 내 곳에 불과한 데다 맞벌이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평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되는 체험센터 수업은 보호자 인솔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맞벌이 학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물론 모든 학교가 방과후 영어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과후 영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안해 최대한 영어 수업 과정 개설을 앞당겨야 한다. 교육청 역시 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등 영어 수업을 내실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중 현
광주 중심사 주지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제주를 다녀왔다. 제주의 사계가 모두 아름답지만 뽀니 뽀니 해도 발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렁이는 가을이 단연 으뜸이다. 이번엔 중심사 신도들과 함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제주 불교를 답사하였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답사의 첫번째날은 제주 4·3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 그 어디를 가든 4·3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제주 4·3은 해방 이후 첨예한 좌우 대립의 현대사가 낳은 지울 수 없는 비극이다. 제주의 이 엄청난 비극은 근본적으로 좌우의 대립 때문이지만 제주가 광랑대해에 홀로 고립된 섬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직접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섬이라는 폐쇄된 지형이 주는 특수성은 영국과 일본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일찍 근대적 의미의 대의

제주에서

제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영국식 민주주의의 특징은 3C로 요약된다. 상식(Common Sense), 대화(Communication), 타협(Compromise)이 그것이다. 상식에 입각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영국식 방식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고립된 섬나라에서 다른 한 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수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이마저 안 되면 다수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섬나라인 일본은 영국과 달리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는 방식이다. 유생의 나라였던 조선과 달리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을 지배한 세력은 무사들이었다. 일본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숨죽이며 살거나 아니면 저항하다 무사의 칼에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섬나라인데다 오랫동안 무사가 나라를 지배한 것까지 더해져서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일본인의 정치적 무관심은 이런 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영국식 민주주의로, 일본은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섬나라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살았다. 그러나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좌우 대립은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당시 제주 인구 10%가량의 양민

을 학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노사이드는 끔찍한 집단 학살을 동반하는 인종청소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향해 이념의 차이를 빌미로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영국식도 일본식도 아닌 최악의 사태가 ‘환상의 섬, 제주’에서 벌어진 것이다.

영국식의 민주주의가 통용되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체적인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영국식의 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는 토양이다. 개인주의의 신이 지배하던 중세를 극복하며 탄생했고,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그런 까닭에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군중들 속에서 민주주의는 성장하기 힘들다. 각종 언론 매체에 휘둘리는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책임지지 못한다. 일본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전체주의와 그로 인한 정치적 독재가 일본의 침몰에 한 몫을 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리 사회는 뜨겁게 외치고 숨 가쁘게 달려 여기까지 왔다. 활발하고 격정적이나 배려와 존중이 부족

한 것이 우리의 문제다. 정치인부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떤 이슈이든 금세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적대적인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해방 직후의 첨예했던 좌우 대립을 연상케 한다. 그때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물론 겁 많은 자의 지나친 노파심이라.

중산간의 어느 한적한 도로를 지나는데 버스 기사님이 무심하게 한마디 했다. “여기에 예전엔 다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지요. 이렇게 사라진 마을이 제주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산간의 마을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너무 쉽게 잊고 있다. 제주의 4·3도 광주의 5·18도 모두 당대에 벌어진 일들이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집단 학살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 바로 우리를 자신이다. 그것도 20세기 들어 두 번씩이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옳은지 따지려 든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따뜻한 시선으로 차분하게 살핀다. 배려와 존중은 개인주의의 실천 윤리이자, 하느님의 사랑이며, 부처님의 자비이다.

기 고

‘82년생 김지영’ 신드롬



명 혜 영
광주시민인문학대표·문학박사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세 살 많은 남편 정대현 씨, 딸 정지원양과 서울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거주한다. 정대현 씨는 LT 계열의 중견 기업에 다니고, 김지영 씨는 작은 홍보 대행사에 다니다 출산과 동시에 퇴사했다. 정대현 씨는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출근한다. 시댁은 부산이고,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김지영 씨가 딸의 육아를 전담한다. 정지원양은 돌이 막 지난 여름부터 단지 내 1층 가정형 어린이집에 오전 시간 동안 다닌다.”(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프롤로그에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모티프는 전

혀 특별하지 않은 누구나의 ‘일상’에서 가져왔다. 곳곳에 시적인 표현이 있어 예술적 맛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은유로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독자가 ‘도대체 이 문장은 뭘 얘기하려는 걸까’라고 추측거릴 필요도 없다. 그냥 나의, 내 어머니의, 또 우리 아버지들의 일상을 담담히 그린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다. 그 평범함을 단지 여성의 시점에서 그렸다는 점이 의도라면 의도다.

그런데 이 소설이 한국의 십대부터 삼십대 남녀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100만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82년생 김지영’이지만 남성들에게는 ‘불운서적(不運書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지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에서 ‘아들의 강한 어택’을 증언하신 어머니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의 소설이 2019년에 영화화되었다. 영화는 개봉되기도 전에 평점 테러를 당하는 등, 여러 정황이 있었

지만, 어쩌면겐 ‘82년생 김지영’은 현재 절찬리 상영 중이다. 특이한 점은 영화를 보기 전과 본 후의 남성들의 평점이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의 청년 남성 대변인이 영화평을 썼다가 여성들의 항의로 철회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는 칼럼에서 “초등학교 시절 단순히 숙제 하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스윙 따귀를 맞고, 스물둘 청춘에 입대하여 갖은 고생 끝에 배치된 자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있는 육 없는 육은 다 듣고, 키 180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고 토로하며 ‘82년생 장봉화’를 만들어도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장 대변인은 ‘김지영의 여자다움’과 ‘장봉화의 남자다움’이 요구되는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분명한 오독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혼동하는 것 같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다움이 요구되는 것은 자기 권력자로서의 수양을 위한 마땅한 과정이다. 반면, 여성다움은 오로지 가부장제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사회가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無 等 鼓

이부 쌍둥이

이부 쌍둥이

세상 모든 신화의 중심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영웅은 아마도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일 것이다. 가장 힘센 사람의 대명사이자 최고신의 아들이라는 점은 어린이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펙이다.

헤라클레스의 출생은 신화적인 면에서는 드라마틱하지만 가족 윤리 차원에서 보면 찜찜한 구석이 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신에게 속아 정조를 잃으면서 태어난 탓이다. 친모인 ‘알크메네’는 전쟁 터로 떠난 남편 ‘암피트뤼온’이 돌아오자 3일 밤낮을 함께 보낸다. 하지만 암피트뤼온은 남편이 아니라 변신한 최고의 신 제우스였다. 제우스가 훑고 지나간 몇 시간 뒤에야 귀가한 진짜 암피트뤼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새를 채게 된다. 전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알크메네도 마찬가지.

알크메네는 산달이 되어 헤라클레스를 먼저 낳고, 다음 날 둘째 아들 ‘이피클레스’를 출산했다. 헤라클레스는 호적상 암피트뤼온이 아버지이지만 친부는 제우스이다. 특히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다르니 ‘이부(異父) 쌍둥이’인 것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몇 년 안 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다른 쌍둥이가 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드물지만 먼저 여성이 두 개의 난자를 배란해야 한다. 여기에 난자의 생존 시간이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배란 후 하루 안에 두 명의 난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동시 수정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이부 쌍둥이는 DNA 차이만 있을 뿐 용모나 목소리 등은 보통 쌍둥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가 다르다는 생각을 산모조차도 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피부색 등으로 인한 미묘한 차이이나 이런 시 양육권 또는 양육비 지급 등을 놓고 친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의 아버지가 돌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얼마 전 대법원이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냈다. 혈연 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가족 해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고민이 엿보이는 판결이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3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